



# 가장 낡고 오래된 교과서

## 약학과 박주연

사람들은 저마다의 교과서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처음 펼치는 교과서. 아는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그 어떤 설명서보다 친절하고 꼼꼼한 설명이 담겨있다. 서론은 배운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도 인간으로서 생활하기에 필수적인 내용이다. 두 발로 서서 걷기, 도구를 사용하기, 말문 트기 같은 내용으로, 그 분량이 적지 않다. 나의 교과서의 목차는 크게 세 단원으로 구성되고 부록까지 곁해 있다. 책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중요하여 나날이 바래가는 ‘가족’이라는 교과서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단원은 ‘어머니’이다. 제일 처음인 탓에 유독 손때가 많이 묻어있다. 어머니께서는 어릴 적 한국무용에 능하셨고, 커서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 우리 가족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경지에 오르셨다. 손이 야무지셔서 집안일이며, 공구를 다루는 일까지 대충하는 법 없이 완벽을 추구하신다. 관심사가 많아 기사, 뉴스로 정보를 모으는 일에 게으름이 없으시고 집안에서조차도 가만히 앉아 있는 적이 없다. 이 단원의 내용을 본받아 음악, 미술, 문학, 언어,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떤 일을 임하든 허투루 하지 않는 자세를 다졌다. 내가 가장 공부하기 좋아하는 단원이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분이다.

두 번째 단원은 ‘아버지’이다. 첫 번째 단원보다는 익숙하지 않지만 곱씹어 이해해보려 노력한 단원이다.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자립하시고 군인으로서, 상사로서 타인을 통솔하는 위치에 오래 계셨다. 맡은 일이 아무리 고된 일이어도 묵묵히 임하시고, 자신의 욕심 하나 없이 가족을 일순위로 여기신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하면 같은 자리에 앉아 몇 시간이고 파고드는 집중력을 가지셨다. 하나뿐인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 약사의 길을 제안하셨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 아버지를 본받아, 시작한 일은 근성 있게 매달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끈기를 배웠고, 어떤 상황에서든 가족을 우선하는 마음가짐을 갖췄다. 종종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그 의미만큼은 항상 가족을 담고 있는 중요한 단원이다.

세 번째 단원은 ‘동생’이다. 엄밀히 말하면 쌍둥이 남매지간이라 살아온 세월에 차이는 없지만, 꼬박꼬박 누나 소리를 들려주는 착한 동생이다. 어릴 적에는 둘도 없는 친구로 자라나 함께 있으면 심심한 줄을 몰랐다. 일찍이 너무 붙어있었던 탓일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각자 학교가 달라지고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한 지붕 아래에 있는 날이 드물게 되었다. 제 사람을 잘 챙기는 탓에 어느 집단에서든 주변에 사람이 북적이고, 항상 따르는 이들이 있다. 본인이 겪은 일을 들려줄 땐, 그 어떤 콩트연극보다 실제 같고 재미있게 풀어내 온가족이 박장대소하게끔 한다. 동갑임에도 여러모로 배울 점이 보이는 든든한 동생이지만 종종 힘이 들 때면 내게 의지해 줬으면 한다.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아직 알고 있는 부분보다 알아가야 할 내용이 많은 세 번째 단원이다.

부록은 두껍지는 않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인 ‘친척’이다. 우리 가족은 주변 사람들에 비해 친척 간의 왕래가 드문 편이다. 사는 곳이 멀기도 하고, 각자의 일상이 바쁜 탓에 내가 성인이 된 후로는 더욱이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절 많은 시간을 함께 한 이모네 식구들과의 추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저녁마다 모여 고기를 구워 먹고, 방학이면 계곡과 산에 놀러 다닌 기억은 나로 하여금 여가를 즐길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나게 했다. 가장 뒤에 있는 내용이지만 전체를 알기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록이다.

나를 이루는 모든 것에는 가족이 담겨있다. 외모, 성격, 사소한 습관까지도 뜯어보다 보면 가족 중 누군가를 연상할 수 있다. 몇 번이고 반복한 교과서는 모든 내용을 잘 아는 듯 싶다가도, 매 회독마다 새로운 내용이 보인다.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애정이 있기에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간혹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하는 면모도 있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기억 속에 오랜 잔상으로 남는다. 태어나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함께 하면서 글자, 문장 하나하나가 내 삶의 기준이 되었고, 이정표가 되었다. 어려운 일이 닦쳤을 때 가장 먼저 펼쳐보는 백과사전이자 마음을 지탱해 줄 양서(良書). 머리와 가슴에 새겨 평생토록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